

정청래 대표, 당심 내세워 反합당 돌파하나 "비당권파 차기 일박기"

1인1표제 관철 여세 몰아 '당원주권 정당' 명분으로 반대파 압박

최고위원 비롯 반발 여전…훈란 장기화 조짐에 국정 부담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인1표제 도입 관철에 이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자신의 지지기반인 권리당원을 앞세워 정면 돌파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른바 당원 주권주의를 명분으로 합당의 골짜기를 건너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되나,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놓고 그 배경과 목적, 효과 등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 국민 전환에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

여권 일각에선 당내 훈란이 설 연후 이전까지 거리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는 물론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합당 추진론의 동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 대표는 4일 최고위에서 합당과 관련된 전(全) 당원 여론 조사를 제안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합당 반대 목소리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 "국회 의원과 당원은 똑같은 당원"이

라며 "언론에서도 의원 간의 논란, 토론 등만 보도되는데 여기에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의 토론은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자신의 역할과 제인 1인1표제가 당권 주권 강화라는 대의 속에 전날 중앙위 투표에서 통과된 만큼 혁신당과의 합당 이슈 역시 당원 주권주의의 가치 선상에 놓고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전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합당 찬성 여론이 더 높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의 지난달 30일 발표 여론조사 자료에서 혁신당과 합당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은 48%가 긍정적으로 봤으며 30%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야당에서 '충정로 대통령'으로 부르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설립한 여론조사꽃의 지난달 23~24일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층의 68.7%가 합당에 긍정적이었고 부정적 답변은 25.4%에 그쳤

다.

다만 1인1표제에 비해 합당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갱점이 훨씬 다층적이고 당내 반발 수위 역시 더 높다는 점은 정 대표의 고민을 키우는 대목이다.

당장 한국갤럽 조사에서 일반 유권자의 경우 합당에 부정적인 답변이 더 높게 나오는 등 당시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당내 의견이 적지 않다.

여기에도 정 대표가 1인1표제와 함께 합당 카드로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되는 등 당내 차기 권력 구도 문제도 얹혀 있는 상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당권파 최고위원 3명은 합당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특히 이연주 최고위원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벌써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마치 민주당을 (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이 나온다"고 지적

했다. 또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여당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고이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특정인의 대권놀이에 민주당을 손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일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재선 모임인 '더민재'의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도 찬반양론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찬반이 4대 6정도였다"며 "찬성과 중에서도 당시 갈라지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더민재 회장인 강준현 의원은 모임 뒤 기자들에게 "갈등이 증폭하면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달 27~29일 전국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4.5%, 응답률은 11.6%다. 심귀영 기자

JW중외제약 '헬리브라', 소아 A형 혈우병 환자 대상 출혈 예방 효과·안전성 재확인

18개 연구·720명 통합 메타분석 결과 국제 학술지 게재

연간 출혈 빈도(ABR) 0.5회 그쳐…두개 내 출혈(ICH) 보고 0건

JW중외제약은 A형 혈우병 치료제 '헬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의 소아 환자 대상 출혈 예방 효과와 안전성 지표를 평가한 메타분석 결과가 최근 국제 학술지 '헤모필리아(Haemophilia)'에 게재됐다고 4일 밝혔다.

헬리브라는 혈우병 환자의 몸 속에 부족한 혈액응고제인 A형 혈우병 치료제 중 유일하게 기존 치료제(제8인자 제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항체 환자와 비항체 환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최대 4주 1회 피하주사로 예방 효과가 지속되는 특징도 있다. 2023년 5월에는 건강보험급여 대상이 만 1세 이상의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로 확대됐다. 2025년 9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목록(EMI)과 소아용 필수의약품목록(EMLC)에 등재됐다.

그리스 아테네 국립카포디스트리아스대학 교육과대학의 콘스탄티나 볼루(Konstantina Bolou) 교수 연구진은 헬리브라 예방요법을 실시한 기준 18개 연구, 소아 A형 혈우병 환자 720명의 데



이터를 통합 분석했다.

연구진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표된 소아 대상 임상 데이터를 통합해 헬리브라의 출혈 예방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분석 결과 헬리브라를 투여한 소아 환자의 연간 출혈 빈도(ABR) 중간값은 0.5회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관절 출혈 유병률은 5.4%

에 그쳤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중증 합병증으로 분류되는 두개 내 출혈(ICH)이 보고되지 않았다. 헬리브라 도입 전 기준 치료제를 사용했던 25세 미만 소아 및 청년 환자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45개 연구 메타분석에서는 두개 내 출혈 발생률이 환자 1000명을 1년간 관찰했을 때 7.4건 발생하는 수준으로 추정된 바 있다.

또한 헬리브라에 대한 항제약 물항체(ADA)는 5건 보고됐으나 임상적 효능 저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진은 "과거 신생아 100명 당 2.1건에 달했던 치명적인 두개 내 출혈 발생이 헬리브라 투여 후 0건을 기록했다"며 "연간 출혈 빈도(ABR) 0.5회 등을 바탕으로 헬리브라가 소아 혈우병 치료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평가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소아 환자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이번 연구는 헬리브라 예방요법의 출혈 예방 효과와 주요 안전성 지표를 다시 확인한 결과"라며 "임상 근거 축적을 바탕으로 치료 환경 개선과 환자 접근성 제고 노력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층간소음 저감 사전인정 업무 온라인 시스템 구축

층간소음 저감 자재에 대한 사전인정 절차 개선..온라인 시스템 구축

정부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인정 신청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자재의 사전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

도록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울러 인정서 위변조 방지 및 진위여부 확인 기능도 추가해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였다.

사전인정 신청은 G4B 포털(www.g4b.go.kr)에 접속해 '바다총격자단구조 인정(LH품질시험인정센터)'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LH 품질시험인정센터(☎ 044-902-9159)로 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층간소음 사전인정 업무온라인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투명성을 대폭 높였을 뿐 아니라 종이 서류 발급 최소화를 통한 ESG 경영을 실천한 시례"라며 "계속해서 공공주택 주거 품질 향상과 ESG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귀영 기자

LH는 국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된 자재를 시험하고 1~4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 및 부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정된 건수는 총 133건(유보 건 기준)이다.

LH는 그간 오프라인·종이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던 사전인정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이로써 인정신청 접수, 인정 진행, 성적서·인정서 발급 등 모든 절차를 별도 종이 서류 제출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설 선물세트 3종선보여

일품진로, 일품진로 오크25, 일품진로 오크43전용잔 기획 세트

2월 1주차부터 전국 대형마트 판매 중



국내 대표 종합주류기업 하이트진로(대표 장인섭)는 설 명절을 맞아 프리미엄 종류식 소주 브랜드 '일품진로' 선물세트는 375ml 3병과 온더락잔 2개를 담았다. '일품진로25'는 향과 풍미가 가장 뛰어난 중간 원액만 사용, 영하의 온도에서 잡아, 불순물을 걸러내는 냉동과 공법 후에 최적의 숙성 기간을 거친다. 깔끔하고 부드러운 목넘김과 은은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일품진로 설 선물세트 3종은 2월 1주차부터 전국 대형마트 등 가정채널에서 판매 중이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관계자는 "대한민국 종류주 역사와 정통성이 담긴 일품진로 선물세트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바란다"며, '국내 대표 종류식 소주 브랜드 일품진로는 앞으로도 프리미엄 소주 시장을 선도하며 확대해가겠다"고 전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SH, 내 집 마련 '서울주택정책소통관' 개관

가상 모델하우스·청약 시뮬레이션·주거 상담 등 각종 체험 및 교류 프로그램 가득



서울시와 SH가 공동 개관한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은 주거 정책과 관련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곳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집 '미리내집'

을 비롯해 정비사업의 새로운 길 '신속통합기획', 이웃과 함께 만드는 '모아주택(타운)' 등 서울시를 대표하는 다양한 주거 정책 정보를 전시돼 있다.

이현진 기자

또한 ▲ 미리내집 대표 평면을 디지털화면을 통해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 모델하우스'

▲ 청약 자격, 자산, 거주기간 등을 입력하면 나에게 맞는 공공주택을 찾아주는 '내게 맞는 공공주택 찾기' ▲ 주거 관련 상담사와 현장에서 직접 대화하며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상담 부스'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종로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내에 위치한 소통관은 서울시 해지와 SH-5 캐릭터로 꾸며져 보다 친근한 분위기로 조성됐으며, 5일부터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을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며, 서울시의 우수한 주거 정책을 체감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지역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귀영 기자

한전,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6' 차세대 신기술 공개

첨단 입체 영상 기법과 스토리텔링 방식을 결합한 몰입형 전시 환경 조성

DC, 지능형전력망 등 9개 신기술을 통해 미래 에너지 신산업 비전 제시



상 기법과 스토리텔링 방식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에너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관은 수퍼커파시티, 초전도, DC 기반 전력기술을 비롯해, 지능형 배전망 운영시스템, 지능형 겸침 인프라 등의 콘텐츠로 구성된다.

아울러 배터리 열화관리 시스템과, IDPP 등 데이터 기반 전력 운영 기술을 통해 에너지 설비의 상태 진단·예측·최적 운영이 어떻게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 모델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전시회를 찾은 기업 및 기관 투자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기관과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사장은 "에너지 신기술은 기술 개발을 넘어,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전의 신기술을 공유하고, 국내외 파트너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받고 있다.

한전은 이번 엑스포에서 탄소중립과 분산에너지 확산, 전력 디지털 전환 등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신기술과 운영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시관을 구성했다.

특히,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유니콘 기업 발굴 등 신사업 비전과 정체성을 소개하고, 에너지의 생산, 이동, 조절 과정을 첨단 입체 영